



産業用機器 등의 國産化 적극 推進

許 慎 九 / (株)金星社 社長

多事多難한 가운데서도 보람된 한해를 보내고 이제 甲子年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한해는 악화되어 온 세계 貿易環境 속에서도 輸出規模의 급성장 등 우리나라 電子産業 4半世紀를 보람되게 마무리지은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 2 차 石油波動의 여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암울한 80年代를 맞아야 했지만 지난 4年을 지내오면서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해에는 國際化해 가는 成長 側面에서 그리고 선진화하기 위한 技術 開發 側面에서 모두 주름살이 지워진 것을 業界 누구나 느끼고 흐뭇해 하고 있으리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甲子年 새해를 맞으면서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다시 가져 본다. 「甲」字도 시작이고 「子」字도 처음이라는 「鳥飛梨落」의 感傷만이 아니라 지난해에 다져놓은 産業用 電子 분야의 기술과 시장에 대한 우리 나름의 기반이 80年代 후반기의 성장 여부에 대한 試金石이 되는 한 해가 바로 84年이라 보기 때문이다.

外觀만의 구조적인 변화는 그것이 개개 企業의 내부 구조까지 波及 影響을 주어 충실하게 침투되어 있어야만 장래에 그 구조를 지탱하고 성장시켜 나아가는 힘이 크게 발휘될 것이다.

이에 대해 본인은 다시 한번 84年 한 해 동안 다음 몇 가지를 우리 業界가 재점검해 두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이다.

첫째, 지금까지의 우리 業界 성장이 家庭用

위주로 성장해 온 데 대해 産業用으로의 構造轉換은 바람직하지만, 이 분야에서 우리 業界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과 매력을 계속 키워 나아가야 하리라고 본다.

國民所得 향상과 消費者性向 변화는 물론이고 技術 발전에 따른 유망 신규 상품의 출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그 展開의 폭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고 볼 때 이 분야의 失機가 곧 電子工業 전반의 構造的인 취약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아가야 하리라고 본다.

이는 우리 業界가 추진하고 바라는 工業 構造의 고도화를 위한 技術 開發의 투자가 家庭用 분야에서 회수되어야 한다는 전략적인 측면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둘째, 技術 開發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어느 특정 기간의 課題가 아니라 우리 業界가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技術開發을 통해 産業 構造를 고도화하고 海外競爭力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앞서 가는 선진국의 專有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뒤쫓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後發開途國의 장래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先進 Maker에 대응하고 後發國 Maker에 앞서가는 노력은 이를 위한 지속적인 資金의 투입과 人力의 투입이 소요되며 그리고 이러한 投入 財源의 원천이 되는 Set 분야의 生産技術 또한 계속적으로 향상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셋째, 오늘날 진보와 개량을 되풀이하며 그

發展 속도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尖端 技術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활동이 84年 중 마무리되어져야 할 것이다.

先進諸國들은 半導體를 중심으로 한 電子技術 및 컴퓨터 등의 尖端 技術 분야의 광범위한 製品化·産業化의 실현으로 소위 3A革命이라 부르는 OA·FA·HA時代에 진입하였으며, 尖端 技術은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先進國 技術력의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國際市場에서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만큼, 가까운 내일의 尖端 技術 韓國을 위해 政府 중심의 테크놀로지 푸시型 기술과 民間企業 중심의 디멘드 풀型 技術 開發에 보다 과감히 그리고 현명하게 도전함으로써 하루빨리 先進 技術 대열에 돌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 및 구체적 投資 活動에 대한 수단의 강구가 실현되어야 하겠다.

내췌, 최근 우리가 느끼고 있는 景氣 回復에 대한 기대가 반드시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지 않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有名 予測機關에서조차 80年代 중반을 하나의 고비로 景氣 展望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 業界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内部 構造 특히 財務構造의 취약성은 향후 成長 분야에서 투자의 장애 요인이 될 것은 물론이고 불황이 도래했을 때 적응 능력이 약하므로 80年度에 겪은 어려움을 다시 겪는 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今年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우리 業界의 시장은 이제 世界 전체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 70年代 國內市場에서

의 경쟁 의식이 海外市場까지 연장되어 지속된다고 할 때 악화되기만 하는 貿易環境에서 경쟁의 우위를 유지하기에 매우 곤란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앞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기업만이 잘함으로써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學界·研究機關·政府 등 관계되는 모든 構成員이 스스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가 돈독해 질 때 우리 電子工業의 장래는 한층 밝아질 것이다.

이제 올 한 해의 포부와 計劃을 밝히는 이 자리에서, 80年代 후반기의 도약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明若觀火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電子工業은 급속한 技術 革新이 이루어지고 있는 尖端 技術産業의 핵으로서 相關産業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情報化社會의 대두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여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電子工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비롯한 産業用 機器와 部品, 素材 등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國産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尖端技術의 海外 의존에서부터 하루빨리 탈피하여 自立 開發 능력을 배양하는 데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技術集約的 産業인 電子産業은 생산 경험을 통한 품질향상 및 生産性 提高가 중요하므로 신제품의 國際競爭力 확보를 위해 內需의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輸出과 內需의 조화있는 발전과 확대 그리고 수출 능력의 극대화를 이룩해 나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